

전남대·조선대병원도 집단휴진하나...의료붕괴 우려 증폭

의협 18일 전면휴진·총궐기대회

광주지역 상급병원인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 의사들도 집단휴진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광주·전남지역 의료붕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에 반발해 서울대병원이 20일부터 집단휴진을 예고하고 대한의사협회(의협)도 18일부터 휴진을 포함한 단체행동에 나서기로 했다는 점에서 광주지역 의료계도 동참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9일 전남대병원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에 따르면 10일 오후 5시 전남대교수회의실에서 '전남대 의대·전남대병원 비대위 전체 교수회의'가 열린다.

이 회의에서는 전국 의협투표 결과에 따른 전체

오늘·13일 각각 의대 전체 교수회의 열고 대응 방안 논의하기로

응급실 등 필수진료는 제외될 듯...의정 갈등 해법 못찾고 평행선

휴진 등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만약 전면 휴진을 할 경우 의협의 전면휴진일인 18일에 맞출 것인지 아니면 서울대 병원 전면휴진 일인 20일로 맞출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의협은 의협회관에서 전국 의사대표자대회를 개최하고 전화원 온라인 투표결과(73.5%)가 휴진을 포함한 단체행동에 찬성함에 따라 오는 18일 전면휴진과 총궐기대회 개최를 발표했다.

전남대와 조선대 비대위는 당장 의협의 투표 결

과에 따르기보다는 자체 교수회의를 거쳐 의견을 모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의협의 투표결과 집단휴진이 결정됨에 따라 전남대와 조선대 의대교수들도 단체행동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조선대 병원의 경우 오는 13일로 예정된 '조선대 병원 의대교수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대병원 비대위는 9일 교수회의를 통해 전체 휴진의 찬성여부와 구체적인 휴진 시작일시 등을 논의하겠지만 이날 결정이 나지 않으면 구체적인

사안을 결정하기위한 설문조사가 진행 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대병원 비대위도 비슷한 대응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다만 조선대병원 비대위는 13일 회의의 단체행동 찬성여부를 묻기 위한 설문조사를 고려하고 있다. 전체회의의 일정이 늦은 만큼 미리 교수들의 의견을 묻고 회의에서 결정을 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전남대와 조선대병원이 집단휴진에 동참할 경우 응급실 등 필수의료 부분은 제외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의료계가 집단행동을 천명한 것은 최근 정부가 각 수련병원에 내린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저히 한 것이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지역 전공의들과 의대 교수들은 정부의 사직서 수리 허용은 전공의 복귀를 유도하려는 '꼼수'이자, '갈라치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전남대 비대위 관계자는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이 라는 갈등의 원인을 해결하기보다는 의대정원 증원을 못 박은 뒤 전공의들의 복귀를 위한 유인책만을 내놓으면서 '갈라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수들의 강력한 대응은 이미 예견된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사태가 100여일을 넘김에 따라 광주·전남지역 환자와 가족들의 불안감은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전공의들의 현장 이탈 공백을 메워왔던 교수들이 집단 휴진을 감행하면 사실상 의료붕괴 사태가 예견되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 남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기자회견을 통해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들에게는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고 거듭 확인하면서 다시 한번 전공의 복귀를 독려하고 나섰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조선시대 광주목사 출청 재현 2024 광주사직단오제가 지난 8일 광주시 남구 회경루 일대에서 열렸다. 조선시대 광주읍을 관할했던 광주목사 출청을 재현하는 행렬이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출발해 회경루로 향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5·18조사위, 계엄군 지휘관 2명 추가 고발키로

학살 자행 20사단 60·61연대장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진상조사위)가 5·18 당시 학살을 자행했던 계엄군 지휘관 2명을 추가 고발한다.

진상조사위는 5·18 당시 20사단 60연대장 정수화 대령, 61연대장 김동진 대령을 내란목적살인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1980년 5월 27일 박준병 20사단장으로

부터 명령을 받고 광주공원, 전일빌딩, 옛 전남도청 등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광주 시민들에게 총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진상조사위는 "27일 전남도청 시민군 진압과정에서 희생자 7명 중 20사단에 의해 살해당한 시민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추가로 고발대상자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진상조사위의 고발 대상자는 기존 12명에서 14명으로 늘었다.

최용 11공수여단장을 비롯한 계엄군 9명은 주남마을과 송암동 일대에서 민간인을 집단살해한 혐의로 고발된다. 최용씨를 비롯해 정호용 특전사령관과 최세창 3공수여단장, 신우식 7공수여단장, 20사단 소속 두 연대장 등 6명은 내란목적살인 혐의로 고발될 예정이다.

앞서 진상조사위는 지난달 31일 열린 정호용씨 등 계엄군을 고발하는 내용의 안건을 전원위원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진상조사위는 12일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사건인사이드

칼부림으로 변신 유흥업소-보도방 갈등

유흥업소接客원 직접 고용에 보도방 업주 성매매 근절 시위 중재 나선 50대 "그 나이에 보도질하냐" 면박에 흥기 휘둘러

광주광산경찰, 살인 혐의 구속

광주시 유흥가 한복판에서 속칭 '보도방' (유흥업소接客원 알선) 업주간 칼부림이 일어나 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집회에 대비해 경찰 3명이 배치돼 있었지만, 범행을 막지 못해 경찰이 제 역할을 못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광주광산경찰은 9일 보도방 업주 A(58)씨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7시 30분께 광주시 광산구 월계동의 한 유흥업소 앞에서 흥기를 휘둘러 다른 보도방 업주 B(44)씨를 숨지게 하고 같은 업종의 C(46)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와 C씨는 이날 오후 8시로 예정된 집회를 준비하다 A씨에게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방을 운영하던 이들이 경찰에 신고한 집회는 '성매매 근절'이었다.

유흥가의 전언에 따르면 이들이 집회를 열게 된 계기는 보도방과 유흥업소간의 갈등이 자리하고 있다.

최근 광주시 월계동 유흥가에서接客원 수요가 급증했고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빚어졌다.

보도방 업주들이 이 틈을 이용해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올리고接客원 공급도 마음대로 하자, 유흥업소가 이들을 통하지 않고接客원을 '직접 고용'하기 시작했다.

이에 맞서 최근 보도방 업체 운영에 나선 B·C씨가 경찰에 집회를 신고하고 '범법행위하는

첨단 보도 및 (변영회협회)보도 해체하라'는 플래카드를 걸고 성매매 근절 시위에 나섰다. 유흥업소를 견제하기 위한 성격의 집회였다.

사건이 발생한 7일은 시위 3회차였다. 시위 1회차에는 유흥업소 업주가 "영업에 방해된다"며 시위에 사용된 마이크를 뺏는 소동이 있었지만 2회차에 소동은 없었다.

집단 일대에서 오랫동안 보도방을 운영했던 A씨는 이날 양측을 중재하러 나섰다.

A씨는 마트에서 흥기를 사들고 시위 현장을 찾았다. B·C씨와 유흥업소를 중재하려는 A씨는 "잘 해보자"는 식으로 이들을 타일렀지만 B·C씨는 되레 "그 나이에 보도질하냐"며 면박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회가난 A씨는 B씨와 C씨에게 흥기를 휘둘렀다. 현장은 비명과 도망치는 시민들로 혼비백산이 됐다.

A씨는 경찰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와 B·C씨 간의 이권 다툼이 있었는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A씨의 정확한 범행동기를 조사중이다.

사건 현장에는 집회 현장을 관리·감독하기 위해 광주광산경찰 경비과 소속 경찰 3명이 미리 배치 돼 있었지만 칼부림은 막지 못했다.

집회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사고를 막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지점이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 대상자들이 경호 대상도 아닐뿐더러 경찰관들이 집회 시위 현장에 나가 있는 이유는 불법집회 등을 감시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돌발 행동을 막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김대인 기자 kdi@kwangju.co.kr

광주문화신협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광주문화신협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협
대표번호 1644-7990

· 본 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